

내용 요약

이 책에 수록된 작품은 테헤란 현대 미술관 (TMCA)과 이란의 문화유산 및 관광기구(ICHTO)가 공동으로 수집한 작품들로서 페르시아 예술사의 황금기 중 일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캔버스에 신성한 창조의 수수께 끼를 묘사하는 데 성공한 페르시아의 뛰어난 예술가들의 예술적 업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원한 인류 역사 속에서 시대를 초월한 경험의 유산으로 기록되었다. 현재 인류에 대한 현실의 고귀한 개념과 신비를 나타내는 컬렉션인 티무르와 사파비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작과 수십 가지 페르시아 회화 작품 컬렉션이 TMCA에 소장되어 있다.

시공을 초월한 페르시아 회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익숙한 그림 요소의 관점에서 추상적이고 고양된 개념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세련된 형태와 색상, 정교함과 정교함을 결합한 정교한 기본 요소가 페르시아 회화의 위대한 유산에 대한 단일 평면 이미지를 만든다. 페르시아 회화에 묘사된 격렬한 전쟁의 잔학 행위,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의 졸도, 모래사막에서의 붕괴와 마주하고 있는 매혹적인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그노스틱스(Gnostics)의 춤, 천국 예언자 무하마드의 승천시 빛에 떠있는 구체(球體)는 세계를 보는 예술가들의 순수한 마음과 그 창조주와 사랑의 창조물인 현실과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 예술에 대한 탐구는 페르시아예술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리고 페르시아 미술의 진정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